

성공적인 이민생활 위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야

양승호 씨, 이민 수기 <사막에도 꽃은 핀다> 펴내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자. 황량한 사막에 홀로 놓였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극한의 환경을 이겨내며 자라고 있는 키 작은 풀들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그리고 바람도 한 점 없는 사막 가운데 작열하는 태양. 어느 방향으로 가야 빠르게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럴 때 자신보다 먼저 그곳을 다녀간 사람의 발자국은 걸음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르다 보면 훨씬 수월하게 사막을 벗어날 수 있다.

이민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산도 물도 낮은 땅에 처음 도착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이 없을 수 없다. 이럴 때 이민 선배들의 경험은 초보 이민자들의 나침반이 될 때가 많다. 또 이민 선배들의 삶의 모습은 내 이민생활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민 선배들이 낮은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어도 그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 듣지 않는 이상, 그들의 삶의 이력을 통해 내 이민생활의 방향을 정하기란 쉽지 않다. 한 개인의 이민생활을 담은 책 등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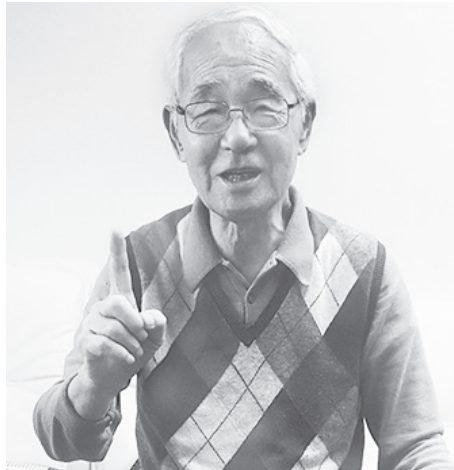
세리토스에서 살고 있는 양승호 씨(86)는 얼마전 이런 이민 초보자들을 위해 자신의 이민생활을 담은 <사막에도 꽃은 핀다>라는 책을 발간했다. 지난 28일 본보를 방문한 양 씨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민생활을 이야기했다.



한국에서 20여 년 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던 양 씨가 미국 이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먼저 뉴욕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던 형의 권유 때문이었다. 양 씨의 형은 오하이오주립대학을 졸업하고 GM에서 재정지원 담당자로 풍요로운 이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형의 권유가 미국 이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양 씨는 형이 있는 뉴욕이 아닌 LA에서 이민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막상 연고가 없는 LA에서의 이민생활의 시작은 생각보다 힘이 들었다. 이민생활의 길잡이가 될 만한 책들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직접 부딪혀 보기로 했다. 그는 먼저 구직을 위해 LA타임스의 구인판을 훑었다. 그렇게 해서 양 씨가 미국에서 처음 하게된 일을 금속가공회사에서 금목걸이, 금팔찌 등의 장식품을 제조하는 일이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주인과 손짓 발짓 해가며 들어간 직장이었지만 오래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하루 만에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액자 만드는 곳에 지원을 했다. 그곳의 사장은 안 씨를 인터뷰한 후, 그곳은 고객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로바로 액자를 만들어 주어야 하므로 먼저 영어 의사소통 능력부터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에 양 씨는 그날 바로 어덜트스쿨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이는 두고두고 양 씨의 이민 생활의 밑거름이 됐다.



양 씨는 이외에도 피아노 판매점, 커피숍, 빌딩 청소, 목수, 사진현상 등의 일을 하며 저녁에는 직업학교에 다녔다. 그렇게 이리저리 일을 하면서 이민생활을 해 오던 양 씨에게 1979년은 매우 특별한 해였다. 그가 'Todd' 라는 선박 제조회사에 입사하면서 안정적인 미국 이민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양 씨가 미국으로 이민 온 지 3년째가 되던 해였다.

'Todd' 는 회사 자체에서 1년 동안 기능공 양성 과정을 거쳐야 정식 취업할 수 있는 회사였지만 양 씨는 6개월 만에 정식 취업할 수 있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의 최저 임금이 \$2.50이었는데 'Todd' 는 \$11.50이라는 파격적인 보수를 지급했다. 거기에 온가족 의료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서 양 씨에게는 형언할 수 없이 좋은 직장이었다. 양 씨는 65세이던 1995년 'Todd' 에서 은퇴했다.

은퇴 후에도 양 씨는 'Todd' 와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는 또 은퇴 후 세리토스 지역을 중심으로 '남가주 중부 노인연합회' 를 조직해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남가주 중부노인연합회' 는 컴퓨터교실 등 노후 생활을 위한 강좌를 개설해 교육하고 노인잔치를 여는 등 이 지역 노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무엇보다 양 씨가 이민자의 삶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의 성공 때문이다. 양 씨의 자녀들은 버클리, MIT, 듀크 등 세칭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양 씨는 이민 후배들에게 당부의 말을 건넸다. "처음 이민생활을 시작하면 무엇보다 해야 좋을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발 벗고 뛰지 않으면 이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라며 "영어가 부족해도 얼마든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버벅거리면서, 손짓 발짓 섞어가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을 담아 사람을 대한다면 상대방이 그마음을 먼저 알고 친절을 베풀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자신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대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야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승호 씨의 이민 수기를 담은 <사막에도 꽃은 핀다>는 비매품으로 발간됐다. 읽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docs.google.com/document/d/1eHp-kyD0SoO2Q6PNQJ2sqa5oLRPmb15WcZkPTD-PmbdvA/edit?ts=5e31be57를 방문하면 전자책 형식으로 읽을 수 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당,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